

재건축·재개발 속도전... '뉴빌리지'도 패스트트랙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제공하고 통합심의...사업기간 6개월 단축

1기 신도시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 사업기간 줄여

정부가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 정비사업 때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도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해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으려 할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생활성화 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한다. 또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 중인 곳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해 수립하면 2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공사비를 검증하거나,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조려로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그간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토리집' 작가 모집

138건 신청 12.5대 1 경쟁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실시한 2024년 OTT 플랫폼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스토리집' 작가 모집 결과 138건의 작가가 신청해 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9일 밝혔다.

장르별로는 드라마 75편, 영화 59편, 애니메이션 3편이 접수됐다.

이에 GICON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 이후 최종 선발된 작가 11팀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스토리집'은 전국의 스토리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스토리 창작지원금과 더불어 작가들이 24시간 자유로운 집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일빌딩 245 6층에 창작공간을 제공한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작가들이 광주시 고유의 스토리에 호응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도시의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끝없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ICON은 '스토리집'을 통해 지금까지 총 27명의 작가를 육성하고, 34편의 작품을 발굴한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귀뚜라미, 저소득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무상설치 지원

(주)귀뚜라미(대표 김학수)는 올해 상반기 '친환경보일러 무상설치'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환경부에서 지정한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이다. 올해부터는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 가구가 노후 가정용보일러를 귀뚜라미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환경부의 설치 보조금 60만 원에 귀뚜라미의 자체 지원금을 더해 무상으로 보일러를 설치 받을 수 있다.

친환경보일러 무상설치 접수는 각 지역별 귀뚜라미 대리점 또는 귀뚜라미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일러 교체 전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지원 자격 확인 후 반드시 '사전신청' 절차를 설치 진행해야 한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고물가와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귀뚜라미 친환경보일러 설치로 난방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에너지 나눔 사업 전개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중고차 보상판매 차종 확대하고 할인액 늘려

현대자동차는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이달 현대차·제네시스 9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현금 할인액을 늘렸다고 9일 밝혔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중고 제품을 제조사에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지난달에는 이 방식으로 현대차 아이오닉5·6, 디올 뉴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했다.

이달에는 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 등 총 9개 차종에 대해 100만~200만원을 깎아준다.

할인 대상은 아이오닉5·6, 디올 뉴 코나 일렉트릭, 디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 모델 제외), 팰리세이드(이상 100만원 할인),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이상 200만원 할인)이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km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를 통해 기존 차량을 팔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05.16 (-12.49)
↓ 코스닥	859.33 (-1.24)
↑ 금리(국고채 3년)	3.391 (+0.008)
↑ 환율(USD)	1354.90 (+1.70)

효성, 완도군·수산자원공단과 바다 지키기 나선다

바다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바다숲 조성·관리 등 협력

효성이 전남 해양생태계 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효성그룹은 지난 8일 완도군청에서 완도군,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한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번 MOU로 효성과 완도군,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는 ▲바다숲 조성 및 관리 ▲해양생태환경 개선 및 ESG 경영 실천 ▲잡피솔 블루카본 사업 추진 노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잡피는 바다에서 유일하게 꽃을 피우는 여러해살이 해조류로 어류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장, 서식처, 은신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맹그로브, 염습지(식물이 사는 갯벌)와 함께 3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효성은 완도군 신진면 동고리 해역을 바다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1.59㎢ 면적에 잡피를 심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



할 예정이다.

조협준 회장은 "효성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생명의 근원인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그룹은 2022년 12월부터 민간기업 최초로 잡피솔 관리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5월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바다숲 블루카본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 인천 영종도 유유해변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반려해변 정화활동'에 나서는 등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 1천만명 육박 '사상 최대'

임금근로자 비중 45.7% 역대최고

남녀 임금격차 31.2% OECD 1위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다.

그러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28만2000명 증가한 997만6000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이는 60년 전인 1963년의 17.4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685만3000명으로 68.7%를 차지했고 임시근로자(280만3000명) 28.1%, 일용근로자(32만명) 3.2%였다.

임시근로자는 여성 비중이 60.7%로 남성보다 많았고 상용근로자 42.4%, 일용근로자 30.7%였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비중도 43.9%로 역대 최고다.

지난해 여성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5만2000명 증가한 171만명이었다. 여성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대가 아니지만 전체 자영업자 중 비중은 30.1%로 역대 최고였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와 임금근로자는 1595만2000명, 1185만2000명으로 수치는 역대 최대였지만 비중은 여성과 반대로 역대 가장 낮았다.

이처럼 국내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녀 임금은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OECD 평균(12.1%)과 비교하면 2.6배로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수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685만3000명으로 68.7%를 차지했고 임시근로자(280만3000명) 28.1%, 일용근로자(32만명) 3.2%였다.

임시근로자는 여성 비중이 60.7%로 남성보다 많았고 상용근로자 42.4%, 일용근로자 30.7%였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비중도 43.9%로 역대 최고다.

지난해 여성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5만2000명 증가한 171만명이었다. 여성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대가 아니지만 전체 자영업자 중 비중은 30.1%로 역대 최고였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와 임금근로자는 1595만2000명, 1185만2000명으로 수치는 역대 최대였지만 비중은 여성과 반대로 역대 가장 낮았다.

이처럼 국내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지만 남녀 임금은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OECD 평균(12.1%)과 비교하면 2.6배로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9일 서울 용산구 노보텔 엠베서더 용산에서 '2023년 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전남 5개 농축협 'NH농협카드 연도대상' 수상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9일 노보텔 엠베서더 용산에서 열린 '2023년 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남 관내 5개 농축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밝혔다. <사진>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과 순천광양축협(조

합장 이성기)은 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동광양농협(조합장 이문성), 우수상은 광양원예농협(조합장 김영배)과 월야농협(조합장 정상진)이 각각 선정됐다.

NH농협카드 연도대상은 2009년 NH농협카드

출범 이후 농협 내 카드 부분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사무소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규 발급과 총 이용액 지표 달성률 등의 기준으로 평가된다.

박종탁 본부장은 "수상사무소의 조합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며 "농축협 상호금융의 지속 성장을 통해 조합원의 실익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갤럭시 스마트폰 기기변경 때 카톡 데이터 쉽게 옮긴다

삼성전자는 카카오톡과 함께 카카오톡에 있는 데이터를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에 따라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 시 '스마트 스위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카카오톡 대화는 물론, 사진과 영상을 무료로 이전할 수 있다.

'읽지 않음'과 같은 메시지 상태는 물론, '오픈 채팅' 데이터도 새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완벽하게 옮겨진다.

또 새 기기에서 카카오톡 사용자 인증만 진행하면 자동으로 옮길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도 높아졌다고 삼성전자는 소개했다.

종전에는 카카오톡의 '대화 백업' 기능을 사용하면 일반 채팅방에 있는 텍스트 대화만 무료로 옮길 수 있고, 사진과 영상은 별도 백업이나 유료 서비스를 구독해야 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물가 여전·고용시장 견고 미 기준금리 불확실성 고조

시장서 6월 인하 전망 '반반'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가운데 고용시장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6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한때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물론 연내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8일 (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6월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인 5.25~5.50%에 머무를 가능성이 한때 50.1%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26.6%)이나 일주일 전(42.1%)보다 올라간 것이다.

12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3.1%로 소수이지만, 연내 0.5%포인트 인하 전망(32.5%)이 0.75%포인트 인하 전망(31.0%)을 앞서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채권운용사 핼코도 최근 연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를 0.25%씩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등 미국 금리정책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LSEG 자료를 근거로 선물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가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연초만 해도 6회 이상 금리 인하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여름 금리 인하나 완전히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점도표(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에서 올해 0.25%포인트씩 3차례, 총 0.75%포인트(중앙값)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지난 달에도 대체로 이러한 전망을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해 1월(+3.1%) 상승보다 높았다고 예상(+3.1%)보다도 강한 모습이었다.

강한 경제 지표에 현 금리 수준이 연준 기대만큼 제약적이지 않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연합뉴스